

지정토론 댓글

원문 중국어

원문 중국어, 번역 김단실

1, 천루 선생님께서로부터 제가 옛날 몸 담았던 직장---닝보(寧波)대학의 공공역사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하길 바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 저는 명대明代의 행정 공문서 독해가 전공이고 주로 문헌자료에 근거하여 역사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공공사학에 한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사실 발언권이 없는 편입니다만 주최측의 요청에 따라 미흡하나마 저의 생각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3. 닝보대학에서 공공역사학 분야를 개척하신 분은 첸마오웨이(錢茂偉) 교수입니다. 첸교수님은 중국사학사(史学史) 출신으로서 초창기에는 明代 사학사를 전공하셨고 주로 고서 정리와 과거(科擧)사, 사학 저서 관련 분야의 연구에 종사해 오셨는데 강의와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역사에 주목하게 되고 관련 이론과 실전적 연구를 전격추진하면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현재는 국가사회과학기금에서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 “당대 중국 공중역사기록 이론과 실천 연구” 를 총괄담당하고 계십니다. 국내 공중역사학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수 있지요. 닝보대학의 공공역사 연구에는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학부생들도 대거 참여했고 특히 “구술역사” 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관여한 분야입니다. 모든 이들로 하여금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고 학부생들에게도 “태사공” ----역사 기록자의 역할을 맡겼다는 점은 닝보대학교 공중사학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4, 저가 알기로는 두 개의 훌륭한 “공중역사학” 케이스스터디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마지막 황제 푸이의 《나의 전반생》이고, 다른 하나는 근대이래 최고의 외교가 두 명(주은래, 리홍장)에 버금가는 인물로 거론되는 구웨이쥘 (顾维钧)의 《구웨이쥘 회고록》입니다. 전자는 푸이가 동북의 푸순 전범관리소 재소중에 직접 구술한 자서전 성격의 반성문을 출판사 편집자가 협업하여 단행본으로 정식 출간한 것입니다. 구웨이쥘의 회고록은 컬럼비아대학의 구술역사 프로젝트로 진행된 수준높은 작품으로서 구웨이쥘 본인의 구술 외에도 일기, 회담기록, 서한 문서, 전보파일을 대거 수록하여 편찬하였기에 17년이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두 주인공은 역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명은 '마지막 황제', 또 한명은 외교가로서 국내 국제 정치외교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산 증인들이였지요. “구술역사” 형식으로 본인들이 몸소 경험한 시대의 역사, 인물, 사건들을 소환해 내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백그라운드와 내막을 적잖이 드러냈다는 점에서 중국 근현대사상 중요한 1차 자료로 자리매김 되었고 학계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했지요. 그러나 이 두 케이스는 “공중역사학”에 속하지만 결코 “구술”에 머물지 않았고 방대한 양의 여타 문헌자료의 뒷받침으로 고도의 치밀성을 획득했던 것입니다.

5, Ningbo 대학의 “공중역사학” 프로젝트에 참여하지는 않았습시다만 저도 독자적으로 일부 공공역사학 관련 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인간은 역사를 만날 때 자신의 가족사에 어느 정도 관심이 생기지요. 저같은 경우 가문의 역사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작업에 적잖은 시간을 할애했었습니다. 저희는 농사를 지으면서 학문을 해온 집안으로서 문자기록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접어들면서 전쟁에 이어 1949년 이후의 이러저러한 정치운동 탓에 문화는 거의 단절되다시피했고(가택수색과

압수를 당하고 교육권도 박탈됨) 기존 문헌의 산실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현재 증조부의 조부 와 백부의 시집과 문집 각 한 권, 그리고 증조부의 시문집 한 권이 그것도 우연히 겹쳐 그나마 남았습니다. 이 외에 참고할 수 있는 문헌이라고는 족보에 기재된 계보나 약전뿐입니다. 그러나 증조부가 90 대까지 장수하셨기에 마을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께서 증조부의 사적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공중”을 “사학”에 이끌어들이므로써 증조부의 일부 역사 경험들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저희 가족은 “공중역사학”의 수혜자였습니다. 단지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6, “공중역사학”에 접하면서 발견한 몇가지 과제

첫째, 신빙성 문제. 주지하다시피 역사학적 글쓰기의 중차대 원칙은 “실사구시”입니다. 그래서 정통 사학의 경우 연구자에게 상당한 자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만 “공중사학”의 경우는 정통적 역사학자들도 참여하지만 아무런 역사학적 소양도 갖추지 못한 문외한들도 참여할 수 있지요. 이처럼 옥석을 구분할 수 없는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들이 서술하는 “역사”의 신빙성은 개개인의 소양에 따라 크게 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응답자는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사건, 타인과 공유해도 무방한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기타 정보는 의도적으로 봉인하고자 합니다. 뿐만아니라 허다한 구술자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학문적 양식이나 도덕적 양심을 갖추지 못하고 자신에 관해서 온갖 허풍을 떠는가 하면 구술하는 역사가 정상궤도를 벗어나기 일쑤입니다. 자신과 이해관계가 얽힌 역사 정보에 관해서 교묘하게 왜곡과 짜집기를 시도하고 심지어 흑백을 전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문화대혁명시기의 “영웅전사” 리우스바오 사건이 그

대표사례였습니다. 현재 “공중사학” 이 대세로 각광받고 있지만 전통적 역사 연구 수법이 이에 병행되어야 하며 역사학자는 가급적 역사의 객관성 원칙을 견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윤리적 문제. 저는 근년들어 저장(浙江)성의 한 산촌마을에서 200 여 명 노동자들이 20 세기 20, 30 년대에 일본으로 건너가 일하고 돌아온 사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모두 이미 세상을 떠고 현존하는 가장 완전한 자료가 1984 년 해당지역의 전체 화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기록입니다. 저는 이 기록에 기초해 많은 현지인들을 인터뷰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하나의 특이한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갔던 이 노동자들이 1930 년대에 여러명의 일본인 여성을 데리고 귀국해 다시 산간지대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현지 사람들은 그녀들이 “유괴” 되어 이곳에 온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최근 쉬저우(徐州)에서 발생한 부녀자 유괴 사건처럼 말입니다. 추적조사를 통해 그 일본인 여성들 중 한 명의 손녀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이 손녀분에 의하면 자신의 할머니는 20 대에 중국에 건너 갔고 저장성 산간지역에서 40 년간 살았으며 전후로 두 명의 촌민과 결혼했었습니다. 1977 년 중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후에 일본으로 귀국했고 손자 손녀들을 모두 일본으로 데려갔으며 그 후 일본에서 30 년 가까이 사시다가 10 여 년 해전에 백 세 가까운 나이에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손녀분의 회억에 따르면 할머니는 머리가 좋으시고 지적 소양을 지니셨지만 당신의 과거에 관한 언급은 일절 거부했기에 가족들은 그녀의 젊은 시절 경력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1984 년의 인터뷰 기록에도 그녀에 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참여 가능한 “공중” 이 적지 않았음에도 얻은 정보가 보잘것 없었습니다. 근본 원인은 이 일본 여성의 “공공 역사” 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지나치게 낮았던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가 중일 양국의 기록물 검색 조사 및 관련자 추가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일본 여성분의 과거사를 복원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의 역사를 파헤쳐 공표하는 것이 본인과 가족들에게 어떤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으므로 이 사안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윤리적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했었습니다.

셋째, 연구 가치를 둘러싼 고민. 저 자신이 인터뷰 과정에 만나게 된 어떤 집단은 학력이 낮고 언어논리가 수준미달일 뿐더러 생애의 행적이 아무런 대표성도 없기에 하이라이트를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주로 일상에 관한 것. 예컨대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귀가했어요” “산석에 절이 있고, 절에는 스님이 있네” 와 같이 천편일률로 순환 반복되는 이야기였지요. 이런 기록은 가령 백프로 사실일지라도 별 의미가 없고 아무리 많은 취재를 하여 자료 뭉치를 쌓아올려도 역사적 가치를 찾아보기 힘들지요. 비록 “공중사학”에 의해 역사연구의 대상 집단이 확장되고 “태사공” (역사의 기록자) 집단에 대한 요구가 하향조정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역사연구의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추구(追求)를 공감대로 하여 최대한 대표성 있고 독특하면서 퀄리티가 높은 역사연구 성과의 창출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저질 역사 서술물 쓰레기를 양산하는 일을 삼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마지막으로 현실적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 학과로서의 역사학은 중국에서는 학과 자체가 취소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학과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포화상태이고 취업 전망도 밝은 편이 아닙니다. 박사과정 졸업생조차도 원하는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부 대학들에서 역사학과의 학생 정원을 축소하거나, 과정 설치시에 역사학 기초 이론 수업 시간을 단축한 결과 역사학 졸업생들의 역사 지식이 빈약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발생이후 역사학과의 취업률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예컨대 대학원생의 경우 올해 졸업한 저의 대학원생 제자 22명 중에서 박사과정으로 진학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의 절반이 아직 취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중고교 역사교사, 그 외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정부산하 기관 단체 취직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빚어진 원인은 위에 언급된 직장들이 체제의 틀 안에 놓여있어 국가의 재정으로 운영되므로 경제적으로 확실한 보장이 돼 있는 반면, 코로나 상황하에서 다른 직장들은 이러한 강점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국 사회 전반에 걸쳐 청년들이 체제 안으로 들어가기로 소망하고 있고 역사학과의 학부생이나 석박사들도 그들과 다를바 없다는 사실은 목전 중국의 일종 사회 문제의 투영일 수도 있겠습니다.